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國際部 (TEL : 553-0941/7)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美, 對日 관세부과 제재해제 예정

1991. 8. 1부터 최소한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포터블 및 데스크 탑 컴퓨터 (HS No. 9903. 41. 15, 9903. 41. 20) 에 대한 100% 관세부과가 해제될 예정이다. 또한 소형 공구 (로타리 헤머와 드릴) 에 대한 100% 관세부과도 해제될 예정이다.

상기 관세부과의 해제는 '91. 8. 1 새로운 미·일 반도체 협정이 발효될 때 시행될 것이다. USTR은 곧 정확한 해제일을 공표할 것이다.

2. 上院, "1991 半導體 國際保護 延長法" 통과

6월 12일, 美 上院은 "1991 半導體 國際保護 延長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95. 7. 1일까지 常務部에게 미국의 마스크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는 국가에서 잠정적인 마스크워크 보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또한 본 권한이 1995 滿了日 이후까지의 허용여부를 결정키 위하여 1994. 7. 1까지 의회에 관련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3. 貿易小委 의장, 美國과 太平洋 國家間의 自由貿易協定 提案

下院 稅入稅出, 貿易 小委員會 議長인 샘 기

본스 下院議員 (民, 플로리다) 은 행정부가 태평양 국가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관한 이들 국가와의 초기 협의를 시작할 것을命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협의에서 "FTA가 가능하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면, 공식 협상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각료급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이 법안은 무역소위의 지도급 위원인 필립 크레인 의원 (共, 일리노이) 과 共同 發議되었는데,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다.

이 법안은 FTA가 공식, 비공식적인 무역장벽의 철폐, 시장개방의 촉진,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보호 위한 규정의 제정, 쌍무 무역분쟁을 해결키 위한 301조 사용을 대치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준의 정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크레인 의원의 측근은 이 법안의 통과 의미는 미국이 농업 보조금 문제 타결에 양보하기 주저해 오는 EC에 더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EC의 참여와 관계없이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EC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서의 기본스 의원의位相에도 불구하고, 이 法案의 展望은 불투명하다. 기본스아 크레인 議員은 열렬한 자유무역주의자이나 이들의 견해가 세입세출위와 의회 전체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4. UR 協會 續開

미국의 신속 승인 권한이 '93.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6.10 GATT는 UR 협상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정제정과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atters)에 관한 협상그룹 지난주 會同하고 잠정적인 향후 협상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 서 비 스 : 6.24~6.26, 7.15~7.19 혹은 7.22~7.26
- 지적재산권 : 6.27~6.28
- 섬유·의류 : 6.24~6.28 혹은 7월 첫째주
- 정부구매 : 7.9~7.12
- 감시기구 : 7.1
- 시장개방 : 7/15주
- Rule making and Trims : 7/22~7/26
- 무역협상그룹 : 7/29주

금년내에 UR을 종료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힐즈대표는 7월말까지 UR 종료를 위한 명확한 실천계획의 수립을 요구. 그러나, 힐즈는 만료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면 EC의 對外 무역집행위원인 안드레이센은 기업들이 작년의 UR 타결실패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UR협상을 금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금년에 UR 타결의 계기는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EC에 의해서 마련될 것이다.

EC는 자체의 발전과 EFTA 국가의 흡수와 동구권 국가의 誘引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측 역시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정신을 쏟고 있다. 이것은 농산물 부문의 최종안에 대한 양보가 덜 중요할지 모른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무역블록 태동에서 오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극복키 위해 UR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계속하여 컴퓨터와 반도체 부문을 포함하여 9개 부문에서의 상호 "無關稅" 협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같이 협정이 한국과 체결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 시장내에서 똑같은 잇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국, 유럽 통화 동맹에 타협적 자세

영국은 단일 통화에 대한 언질없이 유럽 통화 동맹에 대해 타협적 자세를 표명했다.

6. 신임 프랑수 수상의 강경입장 표명

최근 프랑스의 新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Edith Cresson 신임수상이 언급했던 汎유럽 산업정책과 연합에의 필요성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Cresson 수상은 특히 자동차와 전자부분에 대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재무장관과 산업성장관들의 자유주의 견해와는 다르게 Cresson 수상은 오랫동안 정부개입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다.

Cresson 수상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일례로 일본의 NEC과 프랑스 Bull社 간의 컴퓨터 부문 합작에 반대하고 있다.

7. EC 컴퓨터 산업 보고서

EC 집행위의 EC 전자산업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C 산업은 기업 개별적 노력보다 산업내에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우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JESSI 같은 계획(유럽 정보산업 개편을 목적)이 규모면에서 보다 커져야 함을 주장했다.

8. EC, 말레이시아產 Radio 및 TV에 관세 부과

EC 집행위는 말레이시아產 라디오 및 TV 제품에 대해 1991. 5. 12부터 일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EC가 부여해온 개도국에 대한 특혜무역협정하에 CN Code 8527, 8528, 8529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유보받아 왔다.

9. EC '90년도 반덤핑 보고서

EC는 1990년도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취해진 조치에 대한 비교수치 및 '90년도 규제활동을 간추린 것으로서, 한국산 CDP Case와 같은 '90년도 중요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 분석이 실려 있다.

10 GATT

Uruguay 협상이 정치적 차원에서 재개 될 예정이다.

농업이 계속 주요 쟁점 사항으로 예상되거나 반덤핑법 개정 등 제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재개될 것이다.

11. EEA(유럽 경제구역)

EC와 EFTA間 EEA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올해 6월말로 예상했던 협상 완료를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양측은 7월말 합의를 목표로하고 있다.

12. Intrastat

EC域內 市場 協議會(Internal Market Council)는 역내 통관서류(역내교역용으로는 폐지

될)들이 제공하였던 자료를 수집키 위해 "Intrastat" (域內통계자료) 제도 도입을 고려중이다.

이는 EC 역내 국경을 통해 교역하는 기업들이 자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는 또 EC 통계국에 의해 취합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인데 소규모 기업체들의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지게 될 우려가 있다.

13. EC, 정보 서비스 시스템 연구개발 자금

EC는 전기통신을 포함하는 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US\$1.76billion을 책정. 이 계획은 여러분야중에 "Telematics"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하는 정보 서비스 시스템) 컴퓨터와 전기통신망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컴퓨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European nervous System"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 日·EC 공동선언

6월말 이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日·EC間 공동선언 문안에 관한 協商이 최근 시작되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상호 시장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에 관한 상호 公約問題와 무역과 경제활동에 대한 공식·비공식 장벽과 관련된 규정들이 문제시 되고 있다.

15. EC, 韓國·日本產 CDP에 Anti-absorption 조사

최근 보도에 따르면, EC 집행위는 한국 및 일본산 CDP와 관련 Anti-absorption 조사 절차를 발동키로 결정하였다.

동 규정(EC규정 2423/88의 13조)은 반덤핑

관세를 수출업자가 흡수하여 덤핑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경우 추가 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사으로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되고 있다.

당초 한국 및 일본산 CDP 제품에 덤핑 관세가 부과될 시 한국과 일본은 집행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영국도 이에 반대했었다.

작년 GATT Panel 판정 이후 EC는 Screw-driver (Anti-circumvention)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여 왔는데, 이번 관세 흡수에 대한 규정도 Screw-driver 규정과 함께 EC 법에 있는 우회방지 규정이며 EC 업계가 시험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6. EC 집행위, 한국산 SCTV에 부과하는 A/D율引下 제의

EC 집행위의 CTV 담당관은 한국산 소형 칼라TV에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중 최고세율인 19.6%를 10.5%로 인한 조치토록 건의했다.

이는 오리온의 對EC 수출 중단으로 반덤핑 조사시의 최고 세율 부과 여건이 현재 없어짐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실사를 받았었다.

17. EC, 일본 반도체 시장에 시장점유 희망

EC 집행위는 최근 美·일간 반도체 협정에 의해 20%의 일본 반도체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받았으나, 제3국 덤핑과 관련한 한 조항이 EC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확신 받기까지는 同 협정에 관한 평가를 유보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EC는 반덤핑 제소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美·일간 가격정보 교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한편 EC는 OECD내에서 다자간 반도체 협상

을 촉구하고 있다.

18. EC 집행위, 일본산 CDP 수입상 A/D 관세 환급 허용

유럽의 수입업자인 Amroth BV社와 PIA Hi-Fi Vertriebs GmbH社의 신청에 따라 일련의 일본산 CDP 수입품에 대해 징수되었던 反덤핑 관세의 환급이 결정되었다.

집행위의 조사결과, 실제 덤핑마진이 징수된 덤핑 관세율 보다 낮았음이 밝혀졌다.

19. EC의 반덤핑 정책

GATT가 최근 EC가 과도히 반덤핑 조치를 사용하여 자유 무역의 주요 장벽이 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음을 비난한데 대해, EC는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적은 양에 불과하며 이로 영향을 받은 수입품이 1%를 초과하는 경우는 일본(3.5%)과 유고(2%)의 경우에 불과함을 주장했다.

1989년 27케이스가 조사를 받았으나 1990년은 총 43건이었으며 23건에 대해 잠정 관세를, 18건에 대해 확정 관세를 부과했다. 가장 빈번히 조사 받는 품목은 화학, 철강 그리고 섬유제품이며 국가별로는 터키가 7건, 한국이 5건, 브라질, 중국, 인도가 4건 그리고 일본, 유고 3건 등이다.

20. 캠퍼더 관세

EC는 최근 품목 분류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캠퍼더의 관세引上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EC가 국제적 수준에서 재분류 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대해 EC는 일방적 관세引上을 모색할 의도는 없으며, 이와관련 GATT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임

을 언급했다.

GATT 규정에서 關稅引上은 다른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21. 뉴스단신

EC는 프랑스 정부의 HDTV 개발을 위한 1990에서 1995년간 톰슨社에 보조금 지급을 승인. 이 개발 계획은 유럽의 EUREKA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질 것이다.

-Thomson SA社는 자사의 반도체 계열사인 SGS-Thomson Microelectronics NV社와 슐름슨 그룹과의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가전 제품용 반도체 디자인에 주력하게 될 두 회사는 프랑스 Grenoble지역에 공동 디자인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필립스社와 헝가리 국영 Videoton社는 헝가

리에 VCR 합작 공장을 설립중이다.

-Whirlpool社는 자신의 파트너이자 유럽 합작사의 지분 47%를 갖고 있는 Philips Electronics NV社를 인수키 위해 U\$10million을 지불할 것이다. 이로서 Whirlpool社는 Whirlpool International BV의 완전 소유권을 갖게 되어 유럽 최대의 미국 가전회사가 될 것이다.

-일본의 후지쓰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ICL (컴퓨터 제조회사)社는 필란드 Nokia社의 정보 서비스 사업체인 Nokia Data社를 인수할 의향을 발표했다.

-독일의 지멘스와 네델란드 필립스는 SGS-Thomson社와 자신들의 반도체 부문과의 합병 案에 대해 거절했다.

이는 마이크로칩 생산을 위해 이들 3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EC 집행위의 연구 부문 집행위원의 제의에 따라 협의해 오던 것이었다.

직장에 썸

■ '씨'라고 부를 때

- 동년배이거나 나이 폭이 아래 위로 10년을 넘지 않을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20대·30대의 나이에서 40대·50대의 나이에 '씨'자를 붙여 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이차가 10세 이상 난다면 '아무개 선생님' 정도가 무난합니다.

■ '미스'와 '양'

- 20세 전후의 여성에게는 '김○○양'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장에서는 기혼 여성에게도 '미스' '양' '씨'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배여직원은 '언니'나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무방합니다.

■ 직장에서 '언니'라고 부를 때

- 다정한 사이라면 사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언니'란 정다운 호칭은 많은 호칭들과 마찬가지로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적인 사이'에서 쓰여져야만 그 정다운 느낌이 간직됩니다.
-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언니'라고 부르거나 처음보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언니'란 호칭을 쓰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염려가 있습니다.
- '언니'란 말은 함부로 쓸 게 아니라 소중하게 아껴써야 할 호칭입니다.